

# 순천시, 여순사건 76주기 ‘그날의 아픔’ 기린다

‘평화와 치유의 울림’ 인문행사 18일부터 영동1번지·남문터광장 전야제·교육포럼·문화한마당 등 “미래 세대에 인권 알리는 기회”



순천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영동1번지와 남문터광장 등에서 여순사건 제76주기를 맞아 ‘평화와 치유의 울림’을 주제로 여순사건 주간 인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램이 진행된다.

18일 영동1번지 소규모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여순사건 교육 포럼은 여순 10·19 마을교육 과정의 개발과 실행 사례를 공

유하고 참여 학생과 유족, 교사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전야제가 이어진다. 이번 추모전야제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화염원 순천시민합창단’을 구성해 여순창작 음악극 ‘그해 10월’을 선보인다.

창작예술촌 1호와 남문터광장 회랑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여순사건 특별 전시가 ‘여순사건, 미래세대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여순 10·19 사건을 바라보

는 지역청소년과 청년들의 시선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한다. 창작예술촌 1호에서는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청소년들의 시화작품과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 ‘이실직고’ 팀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남문터광장 회랑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여순역사만화, 남문터광장 1층 옥천면에서는 그림책으로 만나는 여순 10·19 프로젝트 중 김바다 학생의 작품 ‘지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를 통해 여순 10·19 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우리 모두의 일이라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1일에는 ‘순천청소년예술제’가 순천시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된다. 청소년들의 시화전, 악기 연주, 여순사건 역사연극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평화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 ‘K-뷰티’ 뷰티페스타, 순천만정원서 19일 개최

순천시는 오는 1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에서 ‘2024년 순천 뷰티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에서 주최하고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전남지회 순천지부가 주관하여, 지역 K-뷰티 문화를 소개하고 뷰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미용학과 학생 등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오는 1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뷰티에니메이션 캐릭터쇼와 함께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뷰티 경연대회, 위생교육, 뷰티산업전, 시민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뷰티경연대회는 지역 뷰티 관련 종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피부·헤어·네일·속눈썹·메이크업 5개 분야 22개 종목

으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경연을 펼친다. 이번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펼친 뷰티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상, 순천시장상 등을 표창할 계획이다. 16개 업체가 참여하는 뷰티산업전에서는 뷰티 시연과 제품 홍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상담이 이루어지며, 관람객을 위한 두피 건강 진단과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는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에서 시민모델 15명이 참여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열리며 관람객들과 깜짝 포토타임을 갖는다. 또한, 네일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 ‘역세권 로컬 창업 DIY 워크숍’ 교육생 모집

순천시는 오는 21일까지 ‘역세권 로컬 창업 DIY 워크숍’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순천 역세권 내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생활권자인 순천 시민을 우대적으로 모집하며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기존의 창업 교육과는 차별화된 점으로, 기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 기초 창업 교육 외에도 수강을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거나 강좌 개설을 제안할 수 있다.

워크숍 수료생들은 홍보 마케팅, 창업 IT 기술, 세무 회계 상담 등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의 시간과 장소는 모집된 수강생에 따라 적합한 강사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참여자의 수요와 창업 유형에 맞춰 이론과 실습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역세권현장지원센터 (061-746-882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만 갈대축제’ 26~27일 순천만습지서 개최

순천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습지에서 제25회 순천만 갈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새 보고, 갈대 보고, 순천 보고’를 주제로 순천시의 생태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축제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새소리와 갈대 소리를 들으며 순천만의 원시적인 자연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출입통제 시간인 새벽과 야간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순천만의 유무형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26일 오전 10시에 순천만 잔디광장에서 대금 연주로 시작된다. 개막식이 끝나면 2009년 차가 다니던 도로를 사람이 걷는 길로 복원한 △삼사르길에서 세계유산길로 이어지는 여성길 걷기 △순

천만 소리 명상 △순천만 탐조 △흑두루미 갈대울타리 여기와 소원 글쓰기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벼베기 등 순천이 걸어온 생태철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사전예약을 통해 야간 출입통제 구간에서 △걸어서 여행하는 백패커들을 위한 순천만의 하룻밤 △갈대쇼 별빛 데이트 △무진 속으로 떠나는 새벽 선상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웹툰작가 기안84가 제안한 짱뚱어 달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사전접수는 순천만습지 누리집 (https://scbay.suncheon.go.kr/wetland/)에서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향림사에서 ‘제6회 순천야생차문화산업축전’이 열린 가운데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향림사 제공

## 순천 향림사 ‘제6회 순천야생차문화산업축전’ 성료

학술대회·사찰 음악회 등 열려

‘제6회 순천야생차문화산업축전’이 지난 12일 전년도찰 순천 향림사에서 열려 도심내 사찰을 활용한 치유와 차 문화, 도시재생을 융합한 축제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김문수 국회의원, 강형구 순천시의회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정희 교육위원장 등 여수·순천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열린 남도효사랑 경연대회 대상에는 광양시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5세 유아들의 행태레가 선정돼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광양 피노키오유아스쿨, 우수상은 구례 자연어린이집이 차지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1000년 조계산권의 차 역사문화와 도심 종교시설의 공유화를 통한 지역재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발표에 나선 이종수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한국불교의 다선(茶禪)과 다례

(茶禮)에서 태고총림 선암사가 가지는 가치를 소개했다. 김대호 K-전통문화학술원 상임이사는 향림사 1000년의 역사와 차 문화에 관한 20여편의 고전문헌을 분석했다.

김종철 하동녹차연구소 실장은 하동전통차 제다 플랫폼 구축 사업 사례를 들어 순천 차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순천 자생차와 다른 지역 생산 차를 성분 분석했다.

그 결과 순천지역 자생 차는 테아닌 함량 6.7배 등 유리아미노산이 총 3.1배, 총 카테킨 함량은 14.9%나 높아 홍차와 발효차 보다 가공할 때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김진 순천관광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은 향림사와 중앙동 등 순천 원도심을 연계한 도시 재생을 제안했다.

또한, 오후 6시 치유를 주제로 열린 ‘이차저차한 울림’ 음악회 식전 행사에서는 윤경숙 남도전통문화교육원장과 중국 허난성 연단단박사, 중국 산둥성 동팡웨이 박사 등 한국과 중국의 차인들이 우리 전통 다례를 시연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배일동 명창의 심청가, 양향진 명인의 광양버꾸놀이, 김중권 바리톤과 여광준 피아니스트, 엄주천 베이스, 이우정 소프라노, 정대호 테너 등 울림팩토리의 성악 공연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흥림예술단 조현성 단장과 박수정 무용가, 유은희 무용가가 순천 지역의 안令和 발전을 비는 한명숙류 태평무를, 최은재 가수가 가요를 선보였다.

원일 향림사 주지스님은 “치유와 차 문화, 지역재생 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1500년 한국 불교사와 항상 같이 존재했었다”며 “문화 축전 행사를 비롯 사찰을 식 전사회와 시사회, 향림사 백년 차밭 작설차 시음회 등도 함께 준비한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장미향 (사)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회 준회 이사장은 “국가유산청은 순천 차 문화를 2025년 제다 분야 전승공통체로 국내 유일하게 선정했다”며 “내년에는 한·중·일의 사찰 차 문화와 제다를 아우르는 세계선차·제다문화축전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 도사동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성료

순천시 도사동은 지난 12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10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순천시장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효도잔치’라는 주제로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사동은 매년 10월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난타공연, 누가누가 잘하나 춤

사위, 어르신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현 도사동 노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은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각 기관단체 및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며, 어르신들의 삶이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